

'중대재해 제로, 안전군산 만들기'

시민의 생명과 안전 수호 위한 공공시설·사업장 중점 관리

군산시는 최근 성남 분당의 정자교 보행로 붕괴사고와 관련 공공시설에 대한 시민 불안을 해소,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2분기 중대재해 제로 안전문화 확립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중대재해는 시설 및 사업장에 근무하는 종사자에게 발생하는 중대산업재해와 공공이용시설 및 공공교통수단을 이용하는 시민에게 발생하는 중대시민재해로 나뉜다.

시 산하시설 및 사업장 79개소, 도급·용역·위탁 중인 139건의 사업장이 중대재해예방 관리 대상이다.

먼저, 시 산하시설 및 사업장에 대해 4월중 전기·소방·건축·토목·시설물안전 등 분야별 전문기보 구성된 안

전점검단을 꾸려 2분기 중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위험요인 확인 후 적극 제거해 간다는 방침이다.

또한, 현장 방문을 통해 시 현업근로자 작업환경의 위험성에 대해 수시로 점검하고 근로자 위험성 평가도 정기적으로 실시해 근로자 대상 위험방지 조치를 시행하며, 안전사고가 예상되는 모든 사업장에 대한 수시 현장 점검으로 산업재해 및 건강장애 관련 위험요인에 대한 예방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건축물시설물안전법 대상인 도로교량 터널, 건축물, 하천 상·하수도 56개소, 실내공기질관리법 대상 도서관·박물관 어린이집 등 22개소 및

준위험시설 선유 스카이라인 등 공공이용시설 79개소에 대한 점검도 2분기 중 추진한다.

시는 우리나라 중대재해의 72.6%가 건설업과 제조업에서 발생한다는 점에 주목해 지난달 29일 시청 대강당에서 공사 현장 관계자들과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건설공사 안전관리와 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했다. 그밖에 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재해 발생 대비 매뉴얼 안전·보건교육 실시 사항 여부 등을 지속 확인하고 필요한 사항에 대한 관리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시민의 유해·위험요인 신고에 대해서도 현장점검 및 조치, 조치결과 통보에 이르는 신고-대응 체계를 재정비하고 시설관리 담당자를 대상으로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군산=이재춘 기자



강임준 군산시장이 군산시의 행복한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직원들과 격의 없는 소통시간을 가지며 눈길을 끌고 있다.

시장·직원, 서로에게 귀 기울여

강임준 군산시장, 직원들과 격의 없는 소통시간 가져

강임준 군산시장이 군산시의 행복한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직원들과 격의 없는 소통시간을 가지며 눈길을 끌고 있다.

시는 '시장과의 직통 대화'라는 테마로 시장과 직원들간의 소통, 공감을 통해 상생하고 행복한 직장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지난 2021년부터 해당 행사를 추진하고 있다.

지난 12일 시내 한 식당에서 간단한 저녁식사를 하며 진행된 이번 소통시간은 지난해 11월 멘토멘티 매칭데이를 통해 결성된 팀(멘토 1명 멘티 2명, 총 37개 팀) 중 매칭 우수 참여그룹 4개팀이 참여해 각자의 입장에서

이해하는 공직문화 등 여러 가지 주제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했다.

행사에 참여한 한 신규직원은 "불편하지만 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시장님과의 저녁식사 자리 대화 진행될수록 유익해졌고, 시장님이 우리의 소리를 듣고 이해하려고 노력하시는 것이 느껴졌다"고 말했다.

강 시장은 "직원들과의 소통시간을 통해 다양한 위치에서 군산시를 위해 헌신하는 직원들의 고충을 알게되었고 이를 개선하여 행복한 직장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군산=이재춘 기자

청년후계농 역대 최다 선발... 미래농업 젊은 피 수혈

익산시, 올해 농식품부·전북형 청년후계농 83명 선발... 영농정착지원금 월 90~110만원 3년간 지원

익산시가 청년후계농을 역대 최다 선발하며 미래 농업을 이끌 청년 농업인 육성을 가속화한다.

특히 청년 후계농의 절반이 창업농이며 비농업계 출신의 농업 진출과 익산 의지역 청년들이 다수 유입돼 익산 농업에 젊은 피가 수혈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시는 미래 익산농업을 이끌 청년후계농 83명을 선발하고 13일 농업기술센터 대강당에서 사업추진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올해 선발된 청년 후계농 인원은 2018년 최초 선발 28명부터 지금까지 역대 가장 많은 숫자로 작년 45명에 비해 2배 인원에 달한다. 시는 올해

인원을 포함해 6년 동안 총 273명의 청년 후계농을 육성하고 있다.

시는 3개월간의 선발과정을 통해 지원자의 영농의지와 목표, 영농계획의 구체성, 실현 가능성, 지원 필요성, 소득 재산 수준을 종합평가했다.

이번 청년 후계농은 창업농이 절반에 가까운 37명이며 기업 승계농은 46명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65명이 비농업계학교 출신이며 농수산대를 포함한 농업계학교 졸업생은 18명에 불과했다.

특히 최근 3년 이내 익산시로 전입한 선정자는 21명으로 청년농민들이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있다.

선발된 청년 후계농은 독립영농경력

에 따라 월 90~110만원씩 최대 3년간 지급되며 후계농 정착자금 용자를 5억 원 한도(고정금리 1.5% 5년 거치 20년 상환)로 지원받는다.

또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 1순위 지원 대상지로 다양한 영농기술 및 경영역량 제고를 위한 교육 및 컨설팅도 제공한다.

시는 이번 사업설명회를 통해 사업 추진방법, 의무사항, 정책자금 용자 등을 교육하고 이보욱 청년시장이 주재, 문화 등 청년 지원정책을 소개했다.

전대식 부시장은 "미래 익산농업을 이끌어갈 최종 대상자로 선발된 청년 후계농들에게 축하를 전한다"고 말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헝가리 비토니테레네시 시장단, 군산시 방문

헝가리 비토니테레네시 시장단이 경제 교류 중심으로 양도시 간 우호 협력 방향에 대한 논의를 위해 방문했다.

13일 군산시에 따르면 비토니테레네시 시장 일행(시장: 조제프 나자마지돈)이 지난 12일 새만금 육상태양광단지 부안 참프레 공장을 시찰하고 이날 강임준 군산시장과 면담 후 고군산군도를 둘러봤다.

이번 군산 방문에는 조제프 나자마지돈 시장을 대표로 졸탄 타마스 레토바이 부시장, 아탈라 키탈리 부시장

함께했다. 조제프 나자마지돈 시장은 성일하이텍 제2리사이클링 공장 유치 시 헝가리 투자청으로부터 큰 규모의 인센티브와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 바 있다.

이번 헝가리 비토니테레네시 시장단의 군산 방문을 계기로 첫 대면 만남을 가진 두 도시는 경제를 비롯한 다방면의 교류를 지속하고 양 지자체간 시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정책을 발굴하여 윈-윈 관계를 구축해 나가자는 데에 뜻을 모았다.

강 시장은 "군산에도 새만금산업단



지가 미래산업 및 신재생에너지 중심으로 개편되도록 관내 기업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조제프 나자마지돈 비토니테레네시 시장은 "급변하는 경제산업 구조 개편에 맞춰 시장부 차원의 적극적인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고 공감을 표했다.

/군산=이재춘 기자

군산시의회,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적극 협조

군산시의회(의장 김영일)는 13일 2023 새만금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서포터즈 지역홍보단 등 관계자들과 간담을 가지고 대회 성공을 위한 적극적으로 협조하기로 했다.

세계스카우트 잼버리대회는 세계스카우트연맹이 4년마다 개최하는 세계 최대의 청소년 국제행사로 8월 1일부터 12일까지 새만금에서 진행되며, 전세계 170여 개의 회원국에서 5만여 명이 넘는 청소년들이 참가하여 문화교류의 장이 될 것으로 이날 27일 잼버리 성공 개최 기원 기념식이 전북도청 야외공연장에서 열린다.

김영일 의장은 "2023 새만금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가 이제 100여 일 밖에 남지 않았다"며 "이번 대회가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도 서포터즈 등 행정 및 예산 지원을 집행부와 협조하여 적극 도울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월 2일 김영일 군산시의회 의장을 비롯하여 김영자·윤신애·최창호 의원이 영의과정 활동자문위원으로 위촉된 바 있어 자문위원회 회의 진행 및 의결 사항을 지원하고 군산시 세부 주요 활동 추천(체험·관람·교육 등), 지역 전문 인프라 네트워크 연결 및 프로그램 개발 협업, 세부 프로그램 운영 주체 추천 및 지원 현장 안전 활동 자원 역할 등을 수행하고 있다.

/군산=이재춘 기자

지구를 시원하게 식혀주는 에너지 절약 실천 방법

1.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은 플러그에서 뽑기
2.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제품 아껴쓰기
3. 겨울철 실내 온도를 20도로 유지하고 내복 입기
4. 전기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

▶ 전주매일 에너지캠페인